

YTN, 종합미디어그룹으로 재도약 주가도 1단계 '5천원' 목표

2004년을 제2차사 원년으로 선언한 YTN이 엔터테인먼트 전문채널 인수, FM라디오 사업 참여, 새로운 방송·통신융합 매체인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분야 진출 등 종합미디어그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YTN은 1일 자사주식이 코스닥 관리종목에서 벗어나 다시 일반종목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계기로 이 같은 제2차사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YTN주식은 지난 4월22일 코스닥시장 재등록이후 30영업일 연속 액면가 이상을 유지, 오는 7일부터 일반 거래종목으로 돌아간다.

표완수사장은 이날 일반종목 전환과 함께 현재 1천1백-1천3백 원대에서 형성되고 있는 YTN주가를 1단계로 5천원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YTN주식의 액면가는 당초 5천원이었으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지난 3월 자본금 2천1백억원을 4백20억원으로 줄이면서 1천원으로 액면 분할했다. YTN은 5대 1 감자와 함께 결손금 9백49억원 전액을 해소했다.

표사장은 올 1/4분기 매출액과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광고수입이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이상 늘고 특히 순이익이 2백29%나 늘어났다고 지적하면서 ▲결손금 전액 해소를 통한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광고수입 호조 ▲매출호조세 지속 ▲순이익 급증 등을 감안할 때 YTN주가 액면분할이전의 액면가(5천원)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표사장은 ▲최근 엔터테인먼트 전문채널인 월드와이드넷을 인수하고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매체인 DMB에 신규 참여하며 ▲FM라디오분야에 새로 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감자이전의 기존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늦어도 내년 안에 YTN주가 액면분할 이전수준으로 올라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표사장은 FM라디오 채널이 연내에 승인될 경우 이 같은 목표를 앞당겨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TN이 최근 인수한 엔터테인먼트 전문채널은 영화

와 코미디 부문 2개다. 표사장은 '주가 5천원-연간 매출액 1천억원-연간 순이익 1백억원'을 의미하는 '5-1-1작전'이 당면 핵심경영목표이며 올해 당기순이익은 창사 이래 최대인 4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표사장은 '5-1-1작전'이 추구하는 목표를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달성하고 향후 3년 이내에 연간 매출규모를 2천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식매당기반을 다져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사장은 이어 코스닥 관리종목 탈피를 계기로 그동안 회사발전에 걸림돌로 여겨져 온 재무위험이 완전 해소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사내유보실적을 감안,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주식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YTN은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회계처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예산제도도 전면적으로 정비, 2005년부터 경영전반의 혁신을 이룰 계획이다.

포토뉴스

YTN, 언론사 축구대회 우승



YTN은 제32회 '서울지역 일선기자 친선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연합뉴스를 1:0으로 누르고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YTN은 지난 5월 22일 경기도 고양시 농협대학 축구장에서 열린 결승전 후반 10분경에 권혁용(영상취재부) 선수가 넣은 극적인 골로 승부를 갈라 놓았다. YTN은 2002년 우승에 이은 2년만의 쾌거다.

YTN 기자협회지회는 우승상금 50만원을 '룡천 폭발 사고' 성금으로 한국기자협회에 전달했다.

YTN 창사 10년 기념 한농 화백 특별 초대전



유엔 창설 50주년 기념우표에 선정된 작품 '감나무'로 잘 알려진 한농 한기석 화백 초대전이 YTN 창사 10년 기념으로 YTN 타워에서 4월27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렸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화백은 우리 민족의 감성을 담아낸 독특한 동양화풍의 그림으로 세계적인 호평을 받고 있는 작가다.

자녀와 함께하는 YTN뉴스 현장 견학



YTN 20대 주요광고주 홍보팀장과 자녀 등 47명이 YTN을 견학하고, 직접 방송을 체험하는 행사를 열었다. 행사 참가자들은 앵커역할, 프롬프트 읽기와 일기예보 실습 등 생생한 YTN 체험 시간을 가졌다.

마케팅국 주관으로 5월 26일 열렸던 이번 행사는 사내의 많은 호응을 받아, 앞으로 정기적으로 치를 예정이다.

6월호 목차

- 121 ▶ 제2차사 기획시리즈② - SO가 바라본 YTN '양질의 콘텐츠로 케이블 활성화에 큰 역할할' "YTN 시청가구 1,100만 시대"
- 13 ▶ YTN 특강 - 진대제 정통부 장관
- 141 ▶ 취재기 - '긴급보고, 선진 혈액관리' ▶ 미리 가본 미래 - 'NAB 2004' 국제방송장비전 취재기
- 151 ▶ 17대 총선 선거방송을 마치고 ▶ 룡천 폭발 사고 취재기
- 161 ▶ '2004. 4. 28' - 돌발영상 1년
- 171 ▶ 자녀와 함께하는 'YTN뉴스 현장' 견학
- 181 ▶ 프로그램 팀방 - 언론과의 대화
 아쉬움 남기고, 다음 만남을 기대한다

제2차사 기획시리즈② - SO가 바라본 YTN

YTN

양질의 콘텐츠로 케이블 활성화에 큰 역할을



오광성
씨앤엠커뮤니케이션(주) 대표이사
SO협의회 회장

YTN은 1995년 3월 개국한 이래 지상파와 차별화된 YTN만의 고유 영역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뉴스 전문채널로 확실하게 자리잡아왔다. 방송 뉴스란 지상파에서 정해진 시간대에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예전에 비해 현재의 YTN은 24시간 방송체제로 새로운 뉴스 포맷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YTN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으로 대구 지하철 참사 특종 보도, CNN보다 빠르게 이라크 전쟁 발발을 세계최초로 방송 보도하는 등 쾌거를 이루어왔다고 본다. 그 외에도 술한 대형 뉴스 취재와 특종 보도도 각종 언론상을 받아왔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지하철과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YTN 모니터 앞에 모여 있는 시민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뉴스전문채널로서 YTN은 지상파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가져왔다고 본다. 이라크전쟁시 뉴스스크롤을 매 프로그램에 집어넣는 것을 국내 최초로 시작했고, 평범했던 기상예보에 첨단 장비를 이용한 컴퓨터

그래픽으로 볼거리를 집어넣고, 레저날씨, 빨래지수 등 현장감 넘치는 날씨 중계라는 참신한 포맷을 시도했다. 특히 편집을 통해 포장된 방송과는 달리 현장 생중계, 전화 연결 등 현장의 소리를 전하게 된 것도 YTN이 한 몫을 했다고 본다.

또한, 지상파에서는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1분 20초에서 1분 30초 동안 축약된 정보로만 다루어주는데, '백지연의 뉴스Q' 같은 프로그램은 3분에서 5분짜리 뉴스리포터나 1분 이상의 인터뷰도 들어간다. 이는 일반적인 뉴스 형식을 파괴한 것으로, 뉴스란 길면 채널을 돌린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심층보도와 다각적인 분석까지 가능한 YTN만의 특색이다.

최근에도 YTN은 '돌발영상'이라는 살아있는 뉴스형식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끌었다. 일반적인 뉴스 뒤에 숨겨져 있던 이야기를 전하는 '돌발영상'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돌발영상'이 나가는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어떤 영상이 나올까 기대하면서 YTN으로 채널을 고정시킬 정도라고 한다.

YTN 방송 초기에는 뉴스로만 24시간을 채우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된다. Old news가 아닌 전국을 커버하는 신선한 뉴스를 전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어왔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 자리를 빌어서 1,200만 가입세대를 가지고 있는 SO업체를 대변하여 YTN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또한, 앞으로 YTN이 MPP로서의 면모를 갖추어나감에 따라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해내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케이블TV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금년도 제 17대 총선에서도 YTN과 SO간의 협력 관계가 돋보였다고 생각한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선거방송공동기획단을 구성했고, YTN이 주관방송사를 맡았다. 케이블TV선거방송기획단과 YTN은 '우리동네 후보는 케이블TV와 함께'라는 주제의 3분짜리 CF를 제작, 전국지역케이블TV에 방영하는 등 케이블TV의 선거방송 역할 알리기와 공명선거를 위한 캠페인을 함께 전개했다. 또한 4월 1일 방송사 중 가장 먼저 4당 선대위원장 초청 합동토론회가 YTN과 지역의 119개 SO를 통해 100분간 생중계되었다. 뒤이어 4월 8일과 9일, 5당 비례대표추천의원을 초청해 교육과 경제 분야의 정책토론회까지 YTN과 전국SO가 공동으로 1,200만 케이블TV가입가구를 대상으로 생중계하는 성과를 올렸다.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케이블TV산업을 위한 SO와 YTN의 밀접한 협력 관계가 계속 발전되고,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뉴스라는 매력 있는 콘텐츠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 송레온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YTN이 디지털 시대에 뉴스 매체로서 어떤 위치를 가름해야할지 재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초고속인터넷의 빠른 보급으로 인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뉴스는 빠르고 정확해야 할 필요성이 보다 더 커지고 있다. 지금처럼 YTN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확고한 방향성을 가지고 시청자들에게 바른 정보를 전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믿는다.

“YTN 시청가구 1,100만 시대”



백상기 (마케팅팀)

“나는 YTN 없는 세상에 살기 싫다!”

제주케이블TV의 유일한 증지가 상품 가입자가 최근 한 말이다. 좀 더 설명하면 제주케이블TV는 대부분의 지방SO와는 달리 시청료가 15,000원인 기본형 가입자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외 2,000원 가량의 최저가형 시청가구가 일부 있다. 그런데 몇 개월 전에 한 시민이 제주케이블TV를 찾아와서 “기본형(15,000원)은 돈이 없어서 가입을 못하겠고 최저가형(2,000원)에는 YTN이 없으니까, 10,000원 정도의 증지가상품을 만들어서 YTN을 편성하리”고 강력하게 협박(?)하면서 한 말이다. 그래서 제주케이블TV의 증지가상품 가입가구는 1세대만 존재한다.

미디어국 마케팅팀은 SO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SO와의 프로그램 공급계약 등으로 인해 전국 SO 118사에 대한 출장이 많은 부서이다. 여러 도시를 방문하면서 SO 임직원은 물론 많은 국민들로부터 YTN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지난해 경북 경주를 방문했을 때에는 택시기사가 택시비를 할인해주는가

하면, 어떤 시청자는 “어제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5명이나 죽었는데 서울 같으면 난리가 날 일인데 어느 방송국도 취재를 오지 않았다”면서 쓴 소리(?)를 하기도 한다. 마케팅팀은 이와 같이 현장의 살아있는 크고 작은 의견을 통해서 YTN이 이제는 명실상부한 국민채널로 자리 잡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YTN이 한국대표 뉴스채널로 발전한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바로 훌륭한 프로그램을 방송해온 YTN과 많은 가입자를 확보해온 SO이다.

즉 YTN은 지난 1995년 개국과 거의 동시에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부터 올해 국회의원 선거방송에 이르기까지 술한 특종·최초보도를 통해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와 같이 YTN은 우수한 상품성으로 인해 200여 PP는 물론 일부 지상파방송보다도 채널번호(24번) 유지도가 뛰어나며, 케이블TV중에는 가장 많은 1,100여만 시청가구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마케팅 측면에서 SO는 YTN에 있어 매우 중요한 1차 고객이다. 그것도 1,100여만 시청가구에 YTN을 연결해주는 고속도로와 골목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우리의 대동맥이자 동반자이다. 시청자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방송사업에 있어 근간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달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시청자를 위해서 STAR의 루퍼트 머독이 중국 최고위층을 여러 차례 방문했는가 하면, 세계적인 유수의 방송사들이 수신료를 무료로 하더라도 국내 SO에 송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시청자 확보를 위해 YTN도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하며, 향후 미디어정책 수립과 SO에 대한 인식 제고도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미디어정책 수립'이다. 국내 방송계는 최근 방송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추진과 DDA(Doha Development Agenda)에 의한 방송시장 개방, 빠른 속도로 출현하는 뉴미디어 등으로 인해 미디어정책 업무의 비중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 디지털 방송의 실시, 지상파·위성DMB 허가이후 방송계 판도 변화, 방송시장 진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유무선 통신기업 그리고 외주지상파TV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답을 해주는 것이 바로 미디어정책일 것이다.

두 번째로 'SO에 대한 인식제고'이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SO는 YTN이 국민에게 달려가는 고속도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속도로는 통행료 수입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산업물동량의 수송을 원활히 해야 하는 더 큰 임무를 맡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전에 산업,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같은 이유로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이용하는 고속도로에 대해 꾸준한 사후관리를 하고 보수공사도 하는 것이다.

YTN은 최근 창사 10년을 맞아 신사옥 입주 등 제2의 개국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 10년이 방송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준비한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이를 바탕으로 고속 질주하는 기간이 돼야 할 것이다. 마케팅팀은 YTN이 모든 국민들에게 방송되는 그 날까지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건설전문가로서 또 골목길을 청소하는 미화원으로서 그 역할을 열심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YTN 특강 - 진대제 정통부 장관

'IT 8·3·9프로젝트'



YTN은 5월 3일 진대제 정통통신부 장관을 초청 대회의실에서 'IT 8·3·9프로젝트'를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진장관은 이 자리에서 "IT 8·3·9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는데 정보통신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8·3·9에서 '8'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8개의 신규 정보통신서비스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휴대인터넷, 위성 및 지상파 DMB, 홈네트워크, 텔레메틱스, 전자태그서비스, 광대역 코드분할 다중접속, 지상파 디지털 TV, 인터넷전화 등이 포함된다.

또 '9'은 광대역 통합망, U-센서(상품에 전자칩을 부착해 인터넷에 연결, 각종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차세대인터넷 프로토콜 등 3가지 IT인프라 고도화 사업을 뜻하고, '3'

는 위의 사업과 연계되어 파생되는 9가지 IT 신성장 엔진을 의미한다.

진장관은 "이들 8·3·9사업은 하나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형성하고 있는데, 올해 우선적으로 가치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8가지 IT서비스를 도입, 활성화함으로써 선순환 발전구조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장관은 IT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2007년까지 2조5천억 원을 투자, 핵심 원천기술개발과 초기 시장창출에 주력하는 한편,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상대 평가제 강화와 민간 전문가에 의한 책임관리제 정착 등을 통해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8·3·9프로젝트가 실현되는 2007년까지는 생산유발효과 600조원, 150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1,1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YTN단신

룡천폭발사고 아픔을 같이 합니다



YTN 임직원은 룡천폭발사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동포를 돕기로 하고 성금 1,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김승재 기자 '이달의기자상' 수상



김승재 기자가 부실한 혈액관리 실태를 집중 보도로 제 163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프레스센터에서 5월 4일 열렸다.

한상규 차장, 박기용 사우 경기도지사 표창 받아



한상규 차장(왼쪽)과 박기용(문화사업팀) 사우가 '2003년 제야행사' 공로를 인정받아 5월 7일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받았다. '2003년 제야행사'는 지난해 12월 31일 도라산 역과 입진각에서 열렸던 행사다.

서울주재 중국 특파원 YTN 견학



신화통신 장금방 기자 등 서울 주재 중국 특파원단 부인 등 11명이 5월 10일 YTN을 방문해 취재 교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서울주재 중국 특파원단은 홍상표 부국장의 안내로 YTN의 스튜디오와 보도국 등 방송시설을 둘러봤다.

CNN 사장 YTN 방문



크리스 크레이머 CNN 사장이 4월 22일 YTN을 방문해 표완수 사장과 양사간 협력문제와 국제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크레이머 사장은 YTN의 창사 10년과 신사옥 임주를 거듭 축하한다고 말하고 YTN이 이라크 사태나 미국 대선 등을 취재 보도하는 데 CNN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표완수 YTN 사장은 CNN이 시행하고 있는 단기연수 프로그램에 YTN 기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양사간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DMB산업협회 창립 준비 회의

DMB산업협회 창립을 위한 회의가 YTN, 삼성전자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3일 YTN 회의실에서 열렸다.



전 공보처 차관을 지냈던 유세준 씨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5월중 창립총회와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2004 단체협약 합의

회사와 노조는 4월 23일 새로운 단체협약에 최종합



의 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장기근속휴가, 휴직, 퇴직금 중간정산, 경조비, 문화체육행사, 유산휴가 등 진전된 근로조건의 조항들로 신설 또는 강화됐다.

제 6대 YTN 노조위원장, 김상우 차장 선출



김상우 차장(편집2팀)이 YTN 제6대 노동조합 위원장에 선출됐다.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실시된 노조위원장 선출투표에서 김상우 후보가 총 투표자 280명(투표율 78.4%) 가운데 168표(60.4%)를 차지해 위원장에 당선됐다.

취재기 - '긴급보고, 선진 혈액관리'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 ...



김 동 민 (기동취재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부실 관리'에 대한 특종 보도가 있을 때마다 '또 피(?) 얘기냐'며 은연중에 지겹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취재를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지만 말입니다. 남의 일이 있을 때 지겹다고 할 수 있지만 내 일이 되고 내 가족의 일이 된다고 생각하면 지겹다는 말, 아니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 스위스에서의 9박 10일, 길지 않은 취재 기간이었지만 배울 것이 많아서 참 배가 아팠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헌혈부터 혈액의 검사와 보관, 병원으로의 이송, 그리고 환자에게 수혈하고 그 이후에

생길지 모르는 크고 작은 부작용에 대한 보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규정이 있었고 그 규정은 정확히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큰 자리든 작은 자리든 제 역할을 충실히 해가고 있는 의사, 간호사, 기술자, 의료 행정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는 힘을 발휘합니다.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제도가 미비해도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규칙이 있더라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생겨날 수 있는 풍토에서는 제도를 아무리 바꾸어 봐야 헛일이라는 비관적 인식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멀지 않은 과거를 돌아보면 그랬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런던과 파리에서 녹색신호가 들어왔는데도 취재차량이 출발을 늦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뒤차는 경적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경적을 울리는 것은 상대에 대한 최고의 욕설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헌혈 자주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프랑스의 의사는 '당연히 많이 한다!'고 답합니다. 환자와 가장 가까이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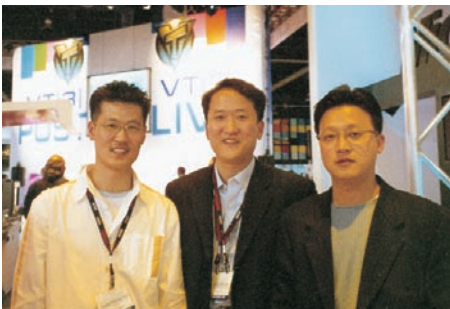
환자를 가장 많이 생각해야 하는 사람은 '간호사'와 '의사', 그리고 '의료 인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인식은 오랜 민주주의 역사의 산물이기도 하고 곧 그 사회 수준을 말해주는 척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혈액관리를 하는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지도 모릅니다.

제도는 우리도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놓아도 지키지 않는다면, 지키더라도 형식적으로 지키면, 책임지지 않기 위해 소수의 인원이 짜고 문제를 덮어버린다면, 우리는 또다시 AIDS와 간염에 감염된 혈액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후진국 수준의 뉴스를 듣게 될지 모릅니다. 정부가 이번만큼은 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혈액 관리 개선도 공염불에 끝날지도 모른다는 저의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결국 국민을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외국에 갈 때마다 저는 항상 배웁니다.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배울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열혈 동안, 저는 한 수가 아니라 두세 수가량 배운 느낌입니다.

미리 가 본 미래 - 'NAB 2004' 국제방송장비전 취재기

라스베가스를 떠나며(Leaving Las Vegas)

이 중 수 차장대우 (문화과학부)



NAB 2004

미국 네바다주 남서부 모하비 사막 끝자락에 위치한 도시 라스베가스. 도박과 환락으로 유명한 이 불야성의 도시에서는 해마다 4월에 NAB(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가 열린다. 세계 최대 방송장비전인 NAB는 올해에는 '차세대 디지털의 모든 것(Go Beyond, The Next Level is at NAB 2004)'이란 주제로 세계 130여개 나라에서 천 4백여 업체 10만여명이 참가해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향연을 펼쳤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들의 호주머니를 노린 마피아가 건설한 라스베가스에서 3박 4일의 고단한 취재를 통해 우리의 눈앞으로 다가온 방송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

코앞에 닥친 방송환경 변화

소니와 파나소닉, 피나클,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세계 유수 미디어 솔루션 업체들과 CNN, BBC 등 방송사들이 선보인 장비와 시스템에 관통하는 두 가지 흐름은 고화질 HD(High Definition)와 쌍방향 데이터 방송이었다. 디지털 기술혁명이 낳은 방송과 통신의 융복합이 빚고 있는 이러한 경향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방송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 올 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다.

방송의 모든 것은 HD로!

이제 방송의 모든 것은 고화질, 고선명 HD로 통한다. 이번 NAB 2004에서 출시된 모든 촬영/편집/송출 장비들은 모두 HD를 지원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소니의 XD캠이나 파나소닉의 캠퓨터(카메라와 컴퓨터의 합성) 카메라는 HD 촬영은 물론 편집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비선형(Nonlinear) 편집기 역시 HD 동영상을 처리하도록 만들어졌다. 소니는 HD용 캠퓨터까지 선보여 HD의 대중화가 시간문제임을 선언했다.

테이프가 사라지는 작업환경 (Tapeless Workflow)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베타타이프는 아날로그 SD용이다. 디지털 HD 시대에서는 베타타이프가 필요 없다. 테이프 대신에 데스크톱이나 랩톱에 쓰여져 친화력이 높은 메모리 카드나 광디스크가 쓰일 것으로 보인다. 소니와 파나소닉은 각각 개당 85분 분량의 동영상을 영화 40도와 영상 80도에서 저장할 수 있고 전송속도도 높은 HD용 광디스크와 PC카드 P2를 선보였다. 랩톱 등 컴퓨터에 적용할 수 있는 비선형 편집기에 메모리 카드나 광디스크를 넣어 촬영한 화면을 통째로 다 볼 수 있고 원하는 화면을 클릭하면 자동편집이 된다. 기존 1대 1편집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또 이동 중에도 편집이 가능해 기동성이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다.

위성 대신 인터넷 전송

이제는 비싼 돈 들여 위성료를 지급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도 고화질의 화면을 전송하고 수신할 수 있게 됐다. 압축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BBC는 이미 ESPN 등 50여개 제휴사들이 인터넷으로 보내주는 동영상을 본사에서 지켜보며 방송과 보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갈수록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국제뉴스와 특파원 보도에 새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정보맞춤형 쌍방향 방송

방송과 통신의 융합, 이에 따른 관련기술의 개발은 방송의 기능을 단순 엔터테인먼트에서 정보 전달형으로 나아가 정보 맞춤형으로 혁신시키고 있다. 이제 시청자는 TV의 리모컨만 누르면 화면 속 동영상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 정보를 분할화면이나 연쇄화면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미국의 지상파와 케이블 양쪽에서 사용될 수 있는 쌍방향 데이터 방송용 미들웨어 ACAP과 쌍방향 방송의 용량을 확대한 S.M.A.R.T 등 관련 원천기술을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함으로써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동형 방송 DMB와 유비쿼터스(Ubiquitous)

이제 TV는 더 이상 집에서 편안히 앉아서만 보는 매체가 아니다. 휴대용 단말기와 휴대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내 손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디지털 혁명의 주요한 특징인 네트워크 아이디어를 활용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TV로 집안의 온도와 조명까지 조절할 수 있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선보였다. 이제 방송은 언제 어느때고(Anytime)할 수 있고 네트워크 시스템과 결합해 이용자의 편리함을 높이는 유비쿼터스로 가고 있다.

서바이벌 게임

급변하고 있는 방송환경은 남대문 시대 개막을 계기로 제 2장사를 선언한 YTN에게는 기회이자 도전이다.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자들과 총성 없는 전쟁을 치러야 하고, 수익성 높은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전략적 또는 전술적 파트너십도 구축해야 하며 HD 쌍방향 방송 체제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해 확보해야 할 것이다. 새 방송환경에 맞게 보도와 제작 시스템도 바뀌어나가 할 것으로 보인다. YTN이 명실상부한 경쟁력 있는 매체로 도약할 수 있을지, 새로운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17대 총선 선거방송을 마치고



윤두현 (전 선거팀장)

1. 머리말

“휴- 끝났다. 이 정도면 짤리지는 않겠구나”

4월 16일 아침 9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시작한 17대 총선 선거방송이 만 16시간 만에 끝나는 순간 나뿐만 아니라 선거방송팀원 모두의 뇌리를 스쳐가는 생각이었다. 당초 기획했던 그래픽 포맷의 대부분을 활용했고 특히 지상파의 가상스튜디오에 맞서 시험 삼아 준비했던 입체 그래픽, 비주얼 4000도 성공적으로 선보였다. 지상파의 엄청난 물량공세에 맞서 몇 십분의 1의 예산과 인력으로 나름대로 선전할 것이다. 물론 미흡한 점도 있었고 불만스러운 곳도 있었지만...

2. 레 미제라블 (불쌍한 사람)

보도국장으로부터 17대 총선 선거방송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 나흘이 되던 지난해 12월 16일 선거방송 준비팀장으로 공식발령을 받았다. 기사 쓰던 일반 하던 나에게 기안서나 푼푼정구서 작성 등 새로운 모든 일이 생소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일이 팀원 확보였다. 선거방송팀 가면 죽어라 고생만 한다는 인식 때문에 친했던 후배들마저도 나와 눈이 마주치면 슬슬 피하는 게 아닌가... 우여곡절 끝에 한 달 만에 팀원이 보강됐다. 그래픽팀의 전하장사 범희철과 디지털기획부의 강계현 그리고 자신이 쉬는 날 편집부 동료들로부터 만장일치로 선거방송팀 파견자로 추천된 김호준, 병가중 발령이 난 박순표 등 네 명이 합류했다.

이들의 얼굴을 보면 생각나는 소설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레 미제라블(불쌍한 사람들).

팀이 구성된 뒤 2월과 3월 두 달 동안의 주요 작업은 그래픽 포맷 기획과 구성. 이번 선거의 화두인 맑고 깨끗한 정치를 상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맑은 물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 때 차용된 것이 애니메이션 영화 '니모를 찾아서'에서 아주 맑고 투명하게 나오는 바다 속 심층수였는데 이러한 컨셉은 경쟁사를 압도했다고 자부한다.

3. 충격의 첫 리허설

준비는 그런대로 순조로웠다. 비록 자정 넘어 퇴근을 밥 먹듯이 하고 야근도 적잖게 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진행되면 4월 초 즈음에는 상당히 여유 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엄청난 오산이었다. 자신만만하게 시작한 리허설 첫 날 컴퓨터상에서는 잘 보이던 글씨와 그림이 부조를 통해서 '영 아니올씨다'였다. 백판의 밝기와 구분이 잘돼 흐릿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백판과 문혀 글씨가 뭉개지는 상황까지 생겼다. 눈앞이 캄캄하다 못해 기절할 지경이었다.

원인 규명할 시간도 없이 긴급 수정에 나섰다. 여기에 한사람이 사나흘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던 1400여명의 후보 사진과 경력 정리 작업은 세 명이 달려붙어서도 5일이 소요돼 연일 밤을 새워야 했다. 집에도 못 들어가고 선거방송팀에 dot자리 깔고 정 못 견딜 정도로 피곤하면 잠시 쉬고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노숙자가 부럽지 않은 생활이었다.

나중에는 입에서 단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신내가 날 지경이었다. 죽으라고 했지만 마지막까지 일부는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못한 채 선거일을 맞았다.

4. 선전했다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이전부터 걱정했지만 투표가 마감되고 지상파 방송사의 예측조사 보도가 나가는 오후 6시대는 우리에게겐 거의 블랙홀이었다. 번번이 틀린 예측조사로 곤욕을 치렀던 지상파 방송사는 이번에는 전체의석에 범위를 주는 방식을 취했고 지역구도 오차범위 안의 접전일 경우 최대최소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보도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준비했던 수많은 예측조사 종합 포맷은 한 번 사용도 못해보고 버려졌다.

하지만 오후 6시대 후반부터는 원활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오후 7시가 넘어서자 입력되는 개표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서 탄력을 받았다. 보도국 여기저기서 경쟁사에 못지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불안한 눈초리로 선거방송을 지켜보던 동료기자들의 입에서도 "이 정도면..." 이라는 말이 이어졌다. 그렇게 해서 4월 15일 선거방송일은 지나갔다.

5. 후기

엄청난 물량을 동원하는 지상파 방송사와의 선거방송 경쟁은 늘 힘들다. 그래서 선거방송을 맡기에 부담이 많다 하지만 이번 선거방송에서 맑고 투명한 정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정보도 명료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하는 등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선전을 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시청률도 평소와 비슷하게 나오고 일부 시간대는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와 내심 흐뭇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것 많다는 것 인정한다. 보다 많은 중계자 동원하고 화상전화기를 이용해 관심 후보의 당선 순간 등 생생한 모습을 제대로 전달 못해 아쉽다. 언젠가는 이런 아쉬움이 전혀 없는 선거방송이 되길 기원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을 담은 백서를 남겼다. 이 다음에 선거방송하시는 분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끝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17대 총선방송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드린다.

☞ 룡천 폭발 사고 취재기 ☜

첫째는 국방이, 둘째는 단둥이(?)



류 북 책 차장대우 (국제부)

“단둥이 아빠 잘 다녀오세요!”

원망에 가득 찬 아내의 인사가 아니더라도 이번에는 정말 출장을 떠나는 마음이 편하질 않았다. 체념 섞인 눈빛으로 덩덤하게 배웅하는 만삭의 아내가 안쓰러워 보였고 많이 미안하기도 했다. 출산때 곁을 지켜달라던 아내의 약속을 이번에도 지키지 못할게 거의 확실했기 때문이다.

3년전 첫 아이를 볼 때 당시 출입했던 국방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때문에 출산을 돕지 못했다. 아내는 반농담 삼아 아이 이름을 '국방'이라 짓자고 했다. 그 후 부부싸움이 있을 때마다 분만실에 혼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며 대드는 걸 보면 정말 섭섭하긴 했던 모양이다. 둘째를 임신했을 때 아내는 이번만큼 꼭 곁에 있어달라고 부탁했다. 살면서 직업 핑계로 대

부분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으니 이번만은 나도 약속을 지킬 맘이었다. 다행히 근무시간에 비교적 변수가 적은 국제부로 자리를 옮겼으니 문제는 별로 없어 보였다. 그런데 갑작스레 회사로부터 룡천 폭발사고 취재를 위해 중국 단둥에 출장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것도 예정일을 불과 사나흘 앞두고.....

대형 사건 사고의 현장은 언제나 취재 전투가 벌어지게 마련이다. 단둥도 그랬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전투를 치르더라도 집에는 꼭 전화를 했다. 출산이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덜 미안할 것 같았다. 오늘도 아내가 전화를 받는다. 음... 아직 병원에 가지 않았군...

매일 밤 "힘당은 데까지 잡아봐!"라는 말도 안 되는 말로 전화를 끊는다. 참으면 아이가 안나오나...

그래도 아내는 정말 잘 참았다. 당초 병원에서 권했던 출산 날짜를 닷새나 넘기고도 아직 집에서 전화를 받았다. 열혈 동안의 출장을 끝내고 돌아오는 날 새벽, 피곤하면서도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터에 갑자기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병원으로 출발한다는 말. 이제 10시간쯤 뒤면 곁에 있을 수 있는데.

"힘당은 데까지 잡아봐!"는 명칭한 말이 또 튀어나온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비행기에서 휴대전화를 켜

다.마음이 급하다. 벨이 한참 울린 뒤 장모님이 전화를 받으신다. 첫째에 이어 둘째까지 남편역할을 대신하신 장모님의 목소리에도 섭섭함이 잔뜩 묻어나온다

"단둥이 애비 얼른 오게..." 병원에 도착하니 첫째와 둘째를 모두 받아준 의사도 한마디 거든다. "국방이, 단둥이 아빠 이제 오셨군요."

소위 옛날 기자와 요즘 기자의 의식을 비교해볼 때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게 출산때 남편이 곁에 있어야 하느냐의 문제일거다. 선배들은 출산을 보지 못했던 경험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지만 후배들의 의견은 정반대다. 나처럼 긴 세대 기자는 고민이다. 나이로 보나 의식으로 보나 나보다 훨씬 신세대인 아내의 꿈은 출산때 내가 곁을 지켜주는 것이었다. 부부가 손을 꼭 잡고 새 생명의 탄생을 보는 기쁨 때문에 또 하나를 낳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아내의 꿈은 이제 완전히 물 건너 간 거다. 아내의 작은 꿈을 언거꾸 지켜주지 못한 남편은 이렇게 지면을 빌어 한마디 할 수밖에 없다

"나누라! 정말 미안해. 근데... 단둥이란 이름은 너무 촌스럽지 않아?"

참고로 둘째 사내 녀석의 이름은 외자로 "현"이다.

‘2004. 4. 28’ - 돌발영상 1년

돌발일기

<5시 30분, 새벽 공기 마시며 출근을 서두르다.>

돌발영상 식구가 되고 난 뒤 난 아침형 인간이 되어 버렸다. 아침잠이 많은 터라 이런 부류의 인간형을 그리 동경해 오지는 않았지만, 요즘 새벽이 주는 여유에서 많은 매력을 느낀다. 아닌 게 아니라 코끝 찡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출근할 때가 가장 여유로운 시간이다. 한산한 버스 안에서 신문을 펼쳐든 나... '돌발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된다.

<6시 30분, 회사 도착, 아이템 전쟁을 치르다.>

6시 30분,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은 순전히 버스 기사님의 몫이다. 운 좋게도, 총알 버스를 만나더라도 하는 날이면 10분 정도는 앞당겨 질 수 있다.

회사에 오면 제일 먼저 컴퓨터를 켜다. 기사에 관련된 소소한 뒷얘기까지 파악해 두는 것이 여러모로 낫기 때문에 우리 기사는 물론이고 인터넷 신문과 각종 정보 보고를 닦치는 대로 뒤진다.

그 다음 이런저런 원본 테이프들을 챙겨 편집기 앞에 앉는다. 테이프를 검색하는 과정도 역시 '닥치는 대로 뒤지기'이다. 뒤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전쟁이라는 비유가 그리 비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뒤지기가 물리적인 전쟁이라면 뒤진 것에서 아이템을 찾아내는 것은 뭐랄까, 심리전쯤 되겠다.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중립'이다.

단순히 '결과적 중립'이라면 좋으련만 돌발영상이 추구하는 중립은 '절차상의 중립'이다. 제작을 하는 우리는 항상 '시소' 중심에서 일한다.

시각의 편향, 감정의 동요, 이런 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시소는 중심을 잃게 된다.

<구성과 편집... 그리고>

아이템 선정이 끝나고 나면 노돌발(PD), 장돌발(PD),



그리고 돌발소녀 미란(AD)씨 그리고 나 이렇게 벗이 모여 구성 회의를 한다. 같은 아이템이라도 구성의 방향에 따라 성격은 180도 달라진다.

구성을 통해 그날 돌발의 성격이 좌우되며 구성의 완성도에 따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힘'이 규정된다.

구성이 완료되면 편집에 들어간다. 편집을 하는 선배들의 모습은 언제나 긴장되어 있다. 선배들의 마음에 얼마만큼 큰 부담이라는 돌덩이가 들어가 있는지 난 상상할 수 없다.

얼마 전 입봉을 통해 독립선언을 한 장돌발은 요즘 "건강검진 받으면 성한테 한 곳도 없을 거라"는 우스갯소리를 자주 하는데 예사롭게 들리지만은 않는다. 모든 제작이 완료되고 방송도 끝나면 나는 선배들 표정 읽기

에 바쁘다.

만족해하는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지...

혹 다시 제작해야 하는 건 아닌지...아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비로소 나는 내 몸이 녹초가 됐음을 느낀다. 행복한 점심 식사와 욕상에서의 커피 한잔, 그러나 오후 일이 기다린다. 피곤함에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슬러 내일의 '돌발'을 위해 편집기 앞에 앉는다.

가끔 테이프만 죽도록 보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돌발'을 사랑해 주는 분들이 있기에...

그보다는 내가 돌발을 사랑하기에 달리고 또 달린다.

정민희 (돌발영상 구성작가)

“최고의 돌발만평을 뽑아라!” ‘돌발영상’ 1년을 맞아 네티즌이 뽑은 돌발만평 BEST 3



1. 장금이와 어둠의 지식들(3월 13일 방송)



2. 백수취객의 외침(4월 3일 방송)



3. 오라버니께(4월 10일 방송)

게시관

- 입사
최진아(편집2팀) 5. 1 / 신은영(디지털기획부) 5. 10
- 퇴사
방태연(편집2팀) 4. 22
- 승진
국정 > 강갑술 보도국장, 부국장 > 진상욱 편집심의실장직대, 부국장 > 홍성표 보도국 부국장 / 박득승 미디어국장직대 / 전병모 기획관리부장 / 김태훈 청주지국장 / 이광호 대전지국장 / 강철원 동경지국장 / 박성근 방송위원 / 박중찬 중계부장, 부장 > 이대승 그래픽팀장 / 김승현 사회2부장 / 이인배 광주지국장 / 최수호 스포츠부 > 정영근 워싱

- 던지국장, 부장대우 > 추은호 정치부장 / 윤두현 국제부장 / 전용화 디지털기획부장 / 황명수 전략기획국 기획팀장 겸 DMB추진팀장 / 한영구 편집운영부장 / 김익진 편집1팀장 / 이철용, 조용원(영상취재부) / 임영선(제작기술부) / 심재영(마케팅1부) / 안재열(마케팅2부) / 천상규 편집3팀장, 차장 > 신광호(기획관리부) / 채문석(보도국) / 김성우(편집2팀) / 송경철 앵커팀장 / 이현, 이귀영(정치부) / 이양현, 강홍식, 김원배(경제부) / 이재철, 김희성, 김형근(사회1부) / 김정대(사회2부) / 김민철 부산지국장 / 유중민 제주지국장 / 박병한(국제부) / 임종열(제작1팀) / 이재윤(제작2팀) / 이성호(기술관리부) / 김정대(디지털기획부) / 허창재(제작기술부) / 이창준(중계부) / 설명수(마케팅2부) / 윤준수

- 중국사업팀장 / 김중술 해외방송팀장 / 김천석(메체관리팀) / 김용건(정치부), 차장대우 > 민병호(홍보팀) / 김진호(편집2팀) / 유재웅, 강성욱, 조승호(정치부) / 오인석(경제부) / 김학무, 이동우(사회1부) / 정두운(제주지국) / 진민호(충청지국) / 박태근(대구지국) / 유재복, 이종국(국제부) / 이종수(문화과학부) / 정중식(스포츠부) / 김진석, 이광래, 윤성수, 김영욱(영상취재부) / 김태현 북경지국장 / 홍성보(제작2팀) / 최광락, 문석호, 김성태, 정창원, 김진호, 김성열(제작기술부) / 방을열, 정진웅, 오광식(중계부) 5. 17차
- 전보
정영근 워싱던지국장 4. 30 / 정명렬 기술연구소 준비회원 5. 1 / 고광남 전략기획국장(이사대우) / 이계

- 성 기술관리부장 / 박중훈 제작기술부장 / 심수중 스포츠뉴스팀장 / 김해중 차장대우 감사실 / 김태진 편집1팀 / 범희철 그래픽팀 / 홍성혁, 김호준 정치부 / 황선욱 차장대우 경제부 / 박순표 사회1부 / 이재홍 스포츠부 / 박현찬, 김한수, 이덕희 제작기술부 / 강계현, 김진국 디지털기획부 / 송진욱, 김재학 기술연구소 준비 5. 17차
- 부음
최영욱(영상취재부) 부친상 4. 26 / 김정현(경제부) 부친상 5. 1 / 이은수 차장대우(홍무부) 부친상 5. 29
- 결혼
성도현(영상취재부) 4. 24 / 남혁우(타워사업국) 자녀결혼 5. 8 / 김연기, 홍해주(마케팅2부) 5. 22 / 이은경(국제부) 5. 29 / 양준모(영상취재부) 5. 30

자녀와 함께하는 'YTN뉴스 현장' 견학



기상캐스터가 되고싶어요



허예원
(일산 신촌초등학교 2년)

YTN 방송국을 갔다 왔다. 정말 신기했다. 거기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이상한 게 많았다. TV 카메라, 각종조명, 마이크 등 기계도 신기했고 PD, 아나운서 등 일하시는 아저씨와 언니들도 신기하게만 보였다. 어리둥절 해하는 내게도 실제방송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물론 방송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앵커는 언니 오빠들이 했고, 나는 프롬프터를 맡았다. 너무나 재미있었다.

사실은 나도 앵커가 하고 싶었지만 떨려서 못했다. 다음에 기회가 또 온다면 앵커도 한번 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이번 방송연습을 통해 하나의 방송을 위해 많은 아저씨들이 노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방송국 견학 중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예쁜 기상캐스터 언니들이다. 나도 자라서 그 언니들처럼 멋진 기상캐스터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방송국 견학이 끝난 뒤 맛있는 점심과 멋진 마술공연도 보았다. 참 즐거운 하루였다.

친절한 YTN 아저씨들 정말 감사합니다



한서진 (서원초등학교 6년)

지난 석가 탄신일에 나는 엄마, 동생과 함께 YTN견학을 다녀왔다. YTN은 24시간동안 뉴스만 하는 뉴스전문채널로 미국의 CNN과 비슷한 방송국이다. 아빠로부터 견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도 백지연 앵커처럼 멋지게 실습을 해보아야지 하고 내심 다짐을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얼마 전에 새로 지은 멋진 방송국 건물에 들어섰다. 방송실습은 원래 '앵커, 기상앵커, 카메라 맨, 프롬프터, 모델'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운이 좋았는지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다 해 볼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앵커였다. 난 앵커가 원고를 늘 외워서 방송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프롬프터라는 기계가 정면의 화면에 원고를 띄워주는 것이었다. 그래도 자연스럽게 읽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았다. 앵커 실습을 한 후에 너무 잘 했다는 칭찬을 듣고 속스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크면 앵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다짐을 한 번 더 해 보았다. 실습 후에 프롬프터가 무엇을 하는지가 궁금해서 알아보았다. 프롬프터는 앵커 앞의 화면에 글을 띄워주는데, 속도를 바꾸거나, 멈추거나, 다음기사로 바꿀 수도 있는 정말 요술램프 같이 신기한 기계였다.

방송실습을 다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세종문화회관으로 데이비드 카퍼필드의 마술쇼를 보러갔다. 여러 가지 신기한 마술을 많이 했지만, 난 그 중에서 초록색 링 낚차를 잡자기 무대에 나타나게 하는 게 가장 신기했다. 특히, 세계적인 마술사라는 데이빗 카퍼필드가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며 그 할아버지의 꿈을 마술로 이루어주는 공연을 할 때는 나도 할아버지 생각이 코끝이 찡했다. 평소에 하기 힘든 경험을 하루에 다한 것 같았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를 위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 YTN 아저씨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프로그램 탐방 - 언론과의 대화

아쉬움 남기고, 다음 만남을 기대한다



“우리 언론이 온전하게 자유를 누리고 또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리라 봅니다. 저희 ‘언론과의 대화’는 언론개혁의 과정을 함께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마다 언론개혁을 위한 논의의 장을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과의 대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5월 7일 ‘언론과의 대화-신문개혁의 현실 편. 엔딩 타이틀이 올라갔지만 아무도 자리를 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진행자인 프레시안 박인규대표와 패널로 출연한 조선일보 진성호 차장과 언론노조 이재국 부위원장. 녹화 내내 혈전을 치렀지만 아직 할 말이 더 남아있었던 것이다. 결국 18층 제작국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안타까웠다. 40분이라는 짧은 제작시간이 더없이 아쉽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 지난 3월 개편과 함께 시청자들과 만나게 된 ‘언론과의 대화’의 최대 단점은 바로 짧은 방송시간이다. 이제 8회를 마친 ‘언론과의 대화’는 회를 거듭할수록 사회자와 토론자 그리고 주제, 토론의 3박자가 착착 들어맞으면서 대화 아쉽게 끝을 맺고 있다. 그렇지만 아쉬움이 남을 때 다음 만남을 더 기대하는 별, 우리는 다음 토론을 준비하면서 한 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언론과의 대화’ 아이템회의는 매주 금요일, 녹화를 마친 후 이루어진다. 탄핵정국 이후 토론프로그램이 붓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문을 연 ‘언론과의 대화’는 첫 회부터 숨 가쁘게 움직이는 세상과 호흡을 맞춰왔다.

탄핵과 4.15선거가 맞물린 상황 속에서 정치권의 부패문제, 편파방송 논란, 진보정당-언론에 할 말 있다, 이미지 정치논란 등 상당히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진보정당-언론에 할 말 있다’ 편에서는 재지 있는 입담으로 인기상종가인 당시 민주노동당 노회찬사무총장이 출연 토론에 흥미를 더해줬다. 4.15총선이 끝난 후에도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 공표금지’, ‘미디어정치와 정치신인’, ‘정치권의 언론개혁 논의’, ‘신문개혁의 현실’ 등 세상의 관심사는 그대로 ‘언론과

의 대화’에 투영됐다.

주제와 패널 선정 후 제작진이 가장 정성을 모으는 것은 3분에서 5분가량의 ENG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 문제제기 인서트물이다. 짧다면 짧은 분량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힘든 부분도 있다. 화면구성이나 인터뷰 구성에 밀도 있는 압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정한 인터뷰를 위해 그만큼 발로 뛰는 시간이 길어지고, 언론의 반응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문기사 하나하나도 꼼꼼하게 모아두어야만 한다. 촬영을 위해 신문 혹은 잡지를 챙길 때마다 방송국에 아직 자료실이 없다는 사실이 아쉽기만 하다.

방송 두 달, 모든 아이템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특히 열린우리당 노웅래당선자와 한나라당 박형준당선자의 맞대결로 관심을 끌었던 ‘정치권의 언론개혁 논의’는 섭외과정에서 순탄치 못한 과정을 겪었다. 애초 출연 예정자는 열린 우리당 신기남 의원과 한나라당 이경재의원. 신기남의원은 열린 우리당에서도 언론개혁 논의의 중심에 있는 만큼 할 말이 많으리라 기대됐고, 한나라당 이경재의원 역시 신기남의원의 맞상대로 흔쾌히 언론개혁의 부당성을 말하겠다고 강한 출연의지를 보여줬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신기남의원쪽에서 계속 적신호가 날아왔다. 결국 녹화 하루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에서 마포 갑 노웅래당선자로 출연자가 결정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열린 우리당측 출연자를 이경재의원에게 알리지 이번에는 그쪽에서 난색을 표명했다. 언론개혁 논의를 16대 국회 연장선에서 얘기해야 하는

데 당사자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맞상대 할 토론 선수가 안 된다는 단호한 거절의사였다. 제작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때부터 정신없이 인터넷과 전화기에 매달렸다. 노웅래당선자가 언론인 출신인 만큼 한나라당에서도 언론인 출신 당선자를 찾기로 했다. 쉽지 않았다. 민감한 주제라서, 그 분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바가 없으며 거절의사만 반복해 들을 뿐이었다. 주제를 바꾸어야 하나 하는 순간, 기자 출신인 부산 수영구의 박형준당선자가 섭외에 응해 주었다. 그런데 또 일이 생겼다. 박형준당선자가 한나라당 연천회의 때 주제발표를 해야 하는 데 시간이 겹친다면서 녹화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냐는 것이었다. 어렵게 섭외가 끝났는데 놓칠 수 없는 일. 제작진은 서둘러 스튜디오시간을 알아보고 O.K 사인을 얻어냈다. 다행히 노웅래당선자도 녹화시간 조정을 받아들였다. 섭외부터 녹화 전까지 제작진이 고생한

덕분이었을까. ‘정치권의 언론개혁 논의’는 기대 이상의 토론을 보여주었다. 정치권의 핫이슈인 만큼 공방이 치열했다. 명분과 논리의 싸움. 노웅래당선자의 언론개혁 명분에 박형준당선자는 빈틈없는 논리로 맞받아쳤다. 토론내용을 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당선자는 준비된 자세로 언론개혁 논의를 성공적으로 이끈 셈이다. 매 회 진행자와 토론자들이 스튜디오에 앉고 부조에서 OK사인이 떨어지면 모두의 눈과 귀는 그대로 ‘언론과의 대화’에 집중된다. 40분 동안 토론자는 물론 제작진 그리고 시청자들 붙잡는 힘은 무엇보다 진행자인 프레시안 박인규대표로부터 나온다. 경향신문기자로 문필을 날리고 프레시안 대표로 인터넷 신문에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박인규대표는 ‘언론과의 대화’로 토론진행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는 주제에서 그의 차분하고 날카로운 진행은 더욱 빛을 발한다.

황영옥 (‘언론과의 대화’ 작가)

